



오늘의 날씨와 생활

4월 25일 목요일 음 3월 17일 (9월)

목요일론

기상정보

맑음



제주에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1-12°C, 낮 최고기온은 19-21°C로 전망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the day and week, including precipitation and wind speed.

Table with sunrise and sunset times, moon phase, and day/night length.

자외선지수 높음 산물위험지수 낮음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림 14/19°C 모레 흐리고 비 15/21°C

월드뉴스

후쿠시마 제1원전, 정전으로 오염수방류 중지

도쿄전력 “방사선량은 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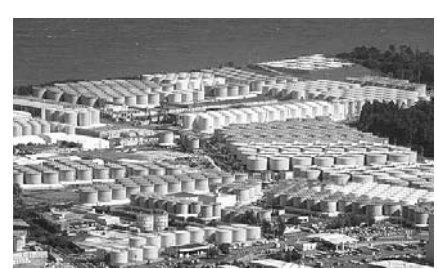
일본 도쿄전력이 24일 정전으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를 중지했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3분께 원전 내 설비에 전기를 공급하는 계통 일부 가동이 중단됐다.

이 영향으로 지난 19일부터 진행 중인 오염수 해양 방류도 일시 중지됐다.

도쿄전력은 원전 1-3호기 원자로 급수설비와 사용후 핵연료 저장수조 냉각 설비는 정전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운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전 주변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연합뉴스

계측기 수치에서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전력은 정전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이후 방류가 중지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달 15일 후쿠시마현 앞 바다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자 도쿄전력은 절차에 따라 오염수 해양 방류를 수동으로 중단했다가 같은 날 재개한 바 있다. 연합뉴스



오수정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경영관리실장

제22대 총선이 끝났다. 여성의원 수는 역대 최대인 60명으로 국회의 총 300개 의석 중 20%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보니 당선과 비례를 통틀어서 5명에 1명은 여성인 셈이다. 20여 년간 매년 10%대에 머물렀던 것에 비하면 가히 긍정적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3.9%에 아직도 미치지 못한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미 금융지주사외이사 수에 따른 여성 비율이 30% 전장을 깬다고 한다. 하지만 정치권만큼은 남성 편향 환경 속에서 유리전장을 끼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여성의 정치참여 담론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비율은 점점 더 높아질 것은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수년 전까지만 해도 성별에 대한 역할 구분이 명확한 사회였다. 과거 여왕의 등장, 수렴청정 등 여성 권력으로 정치의 핵심에 있던 때도 있었지만 이견 역사적으로 아주 특별한 경우의 수이다. 수 천년을 거슬러 살펴볼 때 여성의 정치적 역할이나, 실생활에서의 습속 등을 보더라도 남성 위주의 기록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한다.

20세기에 들어 세계의 흐름은 여성의 참정권 확보로 특정 성별에 의해 권력이 좌지우지되던 시대에서 벗어나고 있는 중이다. 삶과 생활에서도 성별에 의한 역할 구분이 상당 부분 희석되고 있다. 여기에는 근·현대 시대를 거치면서 과학의 발달과 교육의 역할이 성인인지 인식 변화에 한몫을 했다.

현대에서 여성이 정치권 천장을 깨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가장 단순하게는 인구의 절반은 여성이기 때문이다. 사회에서의 비공식적 차별 대응과 사회구조가 성별의 벽을 넘나들며 세분화되고 있고, 파생된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도 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성공천할당제, 비례대표제 등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유리천장은 높기만 하다.

우리 제주는 어떤가. 이미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총 45명의 도의원 중 20%인 9명의 여성위원이 탄생했다. 전국 평균 19.8%이고 2020년 21대 국회 19%에 비하면 제주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는 적극적이다.

원인을 굳이 찾는다면 문화적 특수성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제주는 시작부터 여성이 만들었다는 천지창조신화로 출발한다. 조선 후기

읍지류를 보더라도 제주는 남성보다 여성의 인구가 많았다. 전쟁, 유민, 부역, 경제적 활동에 따른 이동 등 여러 가지 원인을 찾지만, 이유가 어떻든 제주의 경제와 문화 전승에 기여는 여성의 몫이 컸다. 이런저런 제주만이 가진 여성 활동성에 대한 부분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듯하다.

현재 제주는 기초단체 부활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도의원 외에도 기초의원도 선출될 것이다. 정치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는다. 열정과 책임감, 균형적 판단이란 정치적 덕목으로 소신 있는 리더십을 갖춘 때 정치에 입문이 가능할 뿐이다.

수 세기 동안 제주역사를 엮어온 제주여성 역시 이런 정치적 마인드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소소한 생각이 든다. 그리고 제주를 대표하는 여성 정치인이 나타나기를 기대해 본다.

열린마당

MZ세대의 등장과 변화하는 공직문화



이은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생각하고, 자신을 아끼는 일상생활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겨나는 미움, 괴로움, 절망, 등이 생기면 건강하게 해소해야만 한다. 정답은 정말 너무 쉽다. 의사들, 한의사들, 심리치료사들, 학교 선생님들 모두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다. 나도 환자들이 방문할 때마다 물어본다, “운동은 잘하십니까”, “생활은 규칙적으로 하십니까”이다. 실제로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낮고, 항암 치료를 해도 치료 효과가 30%는 더 좋고, 심지어는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오래 건강하게 산다고 한다. 습관적으로 운동하고, 취미생활로 스트레스의 조절을 흐리게 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고, 지난 좋지 않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은 돌아보지 않도록 하자. 우울증이 일단 생기면 이런 것은 잘 할 수 없다. 생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만들자.

를 향유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와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MZ세대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평등’과 ‘평등’, 그리고 소통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들은 상명하복, 연공서열식 문화를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기성세대와는 달리 워라밸과 소통을 중시하며 개인의 개성을 존중받길 원하고 자유롭게 수평적인 문화를 요구한다.

이런 MZ세대 직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무조건 세대 차이가 아니라 시대가 바뀌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공직사회 역시 구성원 모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열린 공직문화로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새로운 세대에 대한 불만과 낯설이 앞설 수 있지만 다른은 틀림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리일보 제주 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한욱 편집국장 고대로.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2022년 정부공식 무병모 공급업체 선정. 신비향, 수라향, 실국향 공천 5년생, 흥미향(화분). 유라조생 1~3년생, 하례조생 1~4년생, 궁천 1~4년생, 레드향 1~5년생, 시라향, 탐나는봉, 원터프린스, 황금향, 카라향, 천혜향, 미니향·레몬, 탐라향 5년생(화분), 일남일호, 유라(1~5년생). 서귀중앙 064-733-7005, 010-6677-5753

씨너트묘목분양. 만감류 - 씨너트 - 카라향, 원터프린스. 조생 - 유라 - 궁천. 기타 - 레몬 - 하굴. 씨너트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한라중앙 010-3696-2057

감귤묘목·포드묘목 분양. 감귤보급품종(1~3년생) 가장 많이 찾는 인기 품종: 레드향, 천혜향, 카라향, 황금향, 한라봉, 궁천, 유라조생, 오하라베니와세, 금귤, 하굴(아마나스) 외 다수품종보유.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품종: 원터프린스, 하례조생, 미니향, 탐나는봉, 미니로, 제라몬. 포드묘목 생종들이 높고 심는 시기 조절가능. 민성중앙 010-3694-5423 / 010-8948-1082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통신전주건설(가입자부담공사), 네트워크 설비공사, 전관방송 설비공사,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753-0404 FAX.751-0045